자치단체장 보수 차등화 … '부익부 빈익빈' 우려

안행부, 재정자립도·행정수요 따라 조정키로

낙후 지원대책 없어 전남 지자체 불이익 우려

안전행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해서 중앙정부 공무원의 규정을 적용하는 현재의 보수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체장이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낼 경우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본적인 보수를 정하고 재정여건이나 인구 등을 통해 상·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17개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별로 인구에 따라 정해진 계급에 따라 같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수를 중앙정부의 직책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

현재 재정력이나 행정수요 등 비슷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로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체계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시도나 시군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고, 여기에 행정수요를 재는 지표인 의원 1인당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곱해 기준액을 정한다.

이어 각계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기준액의 ±20% 안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에 따라 시도의원의 의정비는 최고 서울시와 최저 세종시가 33% 차이가 난다.

연봉제 적용대상인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들은 보수의 상한과 하한액을 두고 그 안에서 협의해 탄력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자칫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수도 적은 전남도와 22개 전남 시·군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성장이나 발전의 동력이 미흡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낙후' 지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6%인 구례군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 자체가 침체돼 있는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단체장 보수 차등화 등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 인력운영 자율화

정부가 인건비 총액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하던 기존 제도 대신 기준인건비를 정한 뒤 추가적인 자율 범위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의 1~3%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단체장 보수는 물론 정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총정원관리제는 폐지된다.

이번 개정령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 범위를 1~3%까지 허용했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상'인 지자체는 기준인건비의 3%, '중'이면 2%, '하'인 경우 1% 내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 관리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대표 임을 위한 합창

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임

/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 상경 활동 나선다

광주시·5·18왜곡 대책위

국회의장·여야 대표 면담

광주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26일 광주시와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 5월 이전에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상경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와 대책위는 이번 상경활동을 통해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대표 등을 면담하는 한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기념곡 지정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은 국무총리 면담과 청와대 방문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0명 중 158명이 찬성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는 일부 보훈단체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식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천년 전 꽃 꺾던 그녀, 미술史의 꽃이 되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꽃을 꺾고 있는 처녀'

(64) 폼페이 최후의 날

시오노 나나미는 에세이집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에서 로마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로마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 열정으로 고대 로마의 역사현장을 발로 뛰며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필생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작가에게도 보통 사람에게도 로마의 역사, 로마의 황제, 로마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 검투사들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롭다.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의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려 한 달음에 달려간 것도 그 까닭일 것이다.

79년 8월 24일 폭발한 베수비오 화산은 폼페이를 그대로 묻어버렸고 시간 역시 그대로 멈춰버렸다. 고대 로마의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는 1592년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굴되었고, 그 도시가 주는 영감은 오늘 영화로 복원된 것이다.

작품 '꽃을 꺾고 있는 처녀'(1세기경)는 폼페이 인근 도시인 스타비아이에서 발굴된 벽화의 일부분으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 덕분(?)으로 수 천 년의 세월을 비껴간 듯 화가가 화폭에서 방금 붓을 뗀 것처럼 생생하다. 사계(四季)의 여신 중 한 신녀가 마치 춤을 추듯이 꽃을 꺾는 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누가 그렸을까? 그림 속에 그녀는 꺾은 꽃을 화병에 가득 담아 누구에게 주려고 하였을까?

고대의 유명한 거장들 중에는 조각가보다 화가가 더 많았으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회화는 그리 많지 않다. '서양미술사'의 저자 E.H.곰브리치는 "고대미술의 성격이나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폼페이 등에서 발굴된 장식벽화나 모자이크 감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도했다. 미술사가들이 한결같이 폼페이 유물 속 벽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 당시의 정물, 인물, 동물, 풍경화 등 회화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통일준비위·통일부 기능 중복 아니다"

통일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 정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통일준비위 발족 구상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가 통일 정책 마련의 실무 사령탑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는 백신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측 제의에 이틀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내부 검토를 해서 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출발 장가계직항
(3/28~5/30까지 적용)
(무안출발 16시10분)-(무안도착 14시 50분) / 금요일 출발 3박 4일 /월요일 출발 4박 5일
[실속] 장가계 3박 4일 959,000원~
[품격] 장가계 3박 4일 1,059,000원~
[실속] 장가계 4박 5일 989,000원~
[품격] 장가계 4박 5일 1,089,000원~

제주 (OZ,KE) 호남지역출발 [1월~3월까지 적용]
선박패키지 149,000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원~
항공패키지 259,000원~

♥특별상품♥ 유류세포함 [2014.3.1~6.30 적용]
[품격] 푸켓 5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799,000원
[품격] 푸켓 6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949,000부터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3월출발- 949,000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4월출발- 929,000원

♥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품격) 더비짓프라임풀빌라 1,630,000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풀빌라 1,840,000원~
보라카이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원~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원~
세부 (정통) 크림슨디럭스 1,310,000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원~

동남아 [선착순 특가 적용]
[베트남] 하노아+하롱베이+센레스토랑 포함 5일 499,000원~
[앙코르왓] 힐링 IN 캄보디아 5일 649,000원~
[싱가폴] 싱가폴/조호바루/바탐 5일 829,000원~

자유투어 ONLY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샤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1,390,000원~
고객만족1위/고객 송출1위 동유럽 6국 9일 1,590,000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890,000원~

중국 [홈쇼핑 大 HIT상품]
북경 쉐라톤호텔+VIP리무진 4일 369,000원~
성도/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일/6일 399,000원~
메리어트호텔 3박+풀옵션 상해 4일 399,000원~

일본 [방학특선 & 홈쇼핑 HIT]
[홈쇼핑HIT] 선상크루즈 미야자키+벳부 5일 279,000원~
[일본3대야경] 후쿠오카 아소 나가사키온천 3/4일 299,000원~
[NO옵션]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3일 399,000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이+스노쿨링 6일 1,190,000원~
[실속 5 Star 항공]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190,000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590,000원~

예/약/상/담 | 상무점 062)652-2974 | 전주점 063)284-6868 | 광양점 061)792-7222 | 나주점 061)332-7400 | 광천점 062)512-1713 | 충장점 062)251-6166